

파견기간	3 월~8 월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번	2021-15834
파견 국가	독일		소속	재료공학부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성명	강동훈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휴학없이 4년을 연속으로 달려오니 대학 생활이 너무 빨리 끝났으며 자아성찰과 미래계획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느낀 나머지 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쉬는 동안 한국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껴보고 싶어 해외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 교환학생을 신청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 및 지역 선정 이유

우선, 독일이 공학에 대하여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들었고,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RWTH는 대학 위주로 발달된 지역인 탓에 높은 건물은 거의 없고 공원과 호수 등의 자연에 둘러싸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대학 생활로부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제 목표와 잘 어울려 아헨 공대를 선택하였습니다.

2. 파견대학 및 지역 특징

근교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들이 많아 주말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등의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세 나라가 인접한 국경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된 지역인 만큼 캠퍼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학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시 강의실 위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헨은 작은 도시임에 저는 평화로워 만족했으나 지루하다는 교환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저는 비자를 독일에 온 후 받았습니다. 쾰겐 협약 덕분에 한국 여권 소지 시 독일 입국은 별다른 절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쾰겐 협약을 맺은 국가일 경우, 6개월 중 90일은 비자 없이 유럽에 머물 수 있으며, 중간에 쾰겐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로 여행을 할 경우 그 날수는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학교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Super C” 건물 0층에서 비자 (residence permit)에 대한 예약(termin)을 신청할 수 있고 2개월 이후 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질 수령은 인터뷰 후 1달~2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4월 28일에 예약을 신청했고 8월 6일에 비자를 수령했습니다. 독일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비용은 100유로로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며 비자 신청서, 여권, 성적증명서, 슈페어콘토, 학교 등록 서류 (enrollment certificate), 건강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35유로를 추가로 지불하여 express 혜택을 받으면 2주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독일에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면접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운 좋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express 혜택에 대해 물어보는 바람에 혜택을 못 받고 출국 2주 전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100유로를 아낄 수 있으나 독일 밖은 못 벗어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 했으나 인터뷰 날짜가 너무 늦게 잡히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독일에 와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쾰겐 협약 내에 예약(테어민)을 잡기만 해도 불법체류자 신세를 피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i. 기숙사

교환학생들은 쿼타룸(Quota Room)이라는 기숙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와 협력 관계인 타기관에서 배정해주기에 일반 기숙사와는 별개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용 인원은 매우 적고 학생은 매우 많아 배정받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기숙사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신청 후 6개월 뒤에 배정을 받기에 교환 프로그램 신청과 동시에 기숙사도 신청을 해야 겨우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ii. WG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 집을 구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식으로는 WG가 있습니다. WG란 공동주거형태의 독일어 줄임말입니다. WG-Gesucht라는 플랫폼을 통해(한국의 “직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집주인들이 빈 방을 공유하면 이 방에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많지만 도시는 작은 아헨의 특성으로 인해 집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 한 방에 신청자가 10명을 가뿐하게 넘습니다. 그렇기에 집주인에게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이에 응해줄 경우 인터뷰를 하여 본인이 왜 좋은 입주자인지 집주인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대한 낮은 집에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0곳 넘게 신청을 했음에도 답장이 온 곳은 4군데였으며 이 중 인터뷰에 응해준 곳은 1곳이었습니다. 많은 곳에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본인만의 기준을 자세하게 세워 집을 선택하고 조건을 하나씩 포기해가며 신청하는 집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권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으로, 최대한 본인이

사교적인 성격이며 책임감이 있음을 강조하고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WG에는 사설 기숙사, 셰어하우스 형태의 집, 자취방 형태의 집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서술한 순서대로 더 높아집니다. 사설 기숙사와 셰어하우스는 본인만의 방이 있고 부엌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셰어하우스는 보통 2-3명과 집을 공유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

학비와 별개로 300 유로의 tuition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중 100 유로는 학생회 비용으로 사용되고 200 유로는 semester ticket이라는 교통권의 비용입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출국 전에 blocked account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얻을 때나, RWTH에 등록을 할 때나 필요한 계좌로 독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이 된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보증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한 달 생활비) * (독일에 체류하는 달 수)만큼의 돈을 미리 한꺼번에 superkonto (blocked account)라는 계좌에 보내면 독일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달 이 돈을 일부 돌려받는 형식의 상품입니다. 이를 도와주는 업체로 expatrio를 추천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superkonto를 만들고 동시에 건강보험도 함께 들 수 있어 여러 가지 귀찮은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은 rwth.online.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서울대와 다르게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제한인원수가 없으며 개강 후(2학기 기준 4월 둘째주) 일정 기간까지 원하는 과목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같은 시간에 분포한 수업들을 동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수업과 별개로 시험에 대한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수업에 대한 성적이 산출되지 않으며 당연히 학점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i. 전공관련 수업

대부분의 학사 수업들은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정말 특이한 수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독일어로 진행되며 독일어 자격증이 있어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사 수업들은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만 가능한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석사 수업들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속한 학부(faculty)의 coordinator에게 직접 수강 가능 수업에 대한 문의 이메일을 보내면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줘 용이합니다. 또한, 웬만하면 대형 강의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규모로 진행할 경우 높은 확률로 시험을 필기시험이 아닌 교수님과 1대 1 면담 형식의 oral exam을 보게 되는데 석사 수업인만큼 높은 수준의 답을 요구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의 질문을 하시기에 가벼운 공부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은 꽤 쉬운 난이도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RWTH는 학사 수업이 석사 수업보다 어려우며 성적도 잘 안 주는 것으로 유명하므로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은 부담이 덜합니다.

ii. 독일어 수업

2 종류의 독일어 수업이 있습니다. 학기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방학동안 빠르게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course와 학기 중에 들을 수 있는 독일어 course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기에 이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진행되는 독일어 수업은 200 유로를 지불하여 별도로 수강하는 형식입니다. Rwth Language Center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3시간 수강하고 1시간 30분 단위로 수강하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어 수업은 수강인원제한이 존재하여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 가능하며 해당 수강 시간이 인원제한을 넘을 경우 랜덤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벨의 독일어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학기가 끝나갈 때에는 매우 간단한 회화가 가능하였고 마트에서의 표지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독일어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독일어 수업은 출석체크를 매우 엄격하게 보며 6번 넘게 결석할 시, 시험을 볼 자격이 박탈되기에 여행에 초점을 더 두시는 분은 걸림돌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불은 안 해줍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우선, 대부분의 물품은 독일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식재료들도 아헨의 아시아 마켓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으며 없다 하더라도 아헨 근처의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대형 한국마트인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약품이 매우 비싸며 처방받기 까다로운 것들도 많아 타이레놀, 감기약, 개인 상비약 등을 꼭 챙겨 가시기를 권합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외식 및 배달음식이 매우 비쌉니다. 파스타, 슈니첼 등의 유럽 음식들은 15~40 유로 사이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싼 음식은 döner로 케밥과 비슷한 음식이며 5~10 유로로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를 매우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블루베리 한 통, 복숭아 한 세트에 3 유로 이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1 유로와 1000 원을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대강 맞습니다.

3. 편의시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i. 의료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료는 매우 값싼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테어민을 잡아야 하기에 최대한 안 다치시고 건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팁으로 가다실 접종이 의료 보험으로 전액 환급이 되어 독일에서 접종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i. 은행

가장 간단하게 독일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N26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N26 은 인터넷 뱅킹 업체이기에 계좌 개설이 매우 간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교환학생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교통

RWTH 에서는 semester ticket 이라는 교통권을 지급해줍니다. 이는 독일 전역의 RE(regional train)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일부 도시까지도 유효합니다.

유용한 교통앱으로는 DB, Naveo, 구글맵이 있습니다. DB(Deutsche Bahn)은 도시 단위로 이동하실 때 기차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앱입니다. ICE 등의 고속열차 티켓을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DB 앱에서 제공하는 Bahn card 라는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구입할 시 일정 기간동안 예매하는 기차들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2-3 번 이상만 써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에 독일 내에서 여행을 자주 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Naveo 는 버스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앱이며 앞서 설명드린 semester ticket 을 등록하는 앱이기도 합니다. 구글맵에서도 버스 시간을 조회할 수 있으나 꽤 자주 틀리며 naveo 에서는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버스에 대한 정보도 모두 반영해서 설명해주고, 정거장 위치도 잘 설명해주어 매우 유용합니다.

4. 안전 관련 유의사항

독일이 대마초가 합법이 된 만큼 길거리에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말고 먼저 시비를 걸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지 않으므로 경각심은 가지되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RWTH 는 매우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여 매우 안전합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마트는 Rewe, Aldi, Netto 3 가지가 일반적이며 Rewe 가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좋은 퀄리티로 조금 더 비싸게 제공하는 반면, Aldi 와 Netto 는 좀 더 제한적인 상품을 더 싸게 제공합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유럽에서의 삶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만나며 사고도 더 넓어졌습니다.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생각치 못한 다양한 진로의 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8 월 27 일
지원자	강 동 훈 (서명) 